



폴리 '기억의 상자' 앞 휴식
'광주 폴리(Folly) II' 프로젝트 작품 중 하나인 '기억의 상자'가 최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인근에 설치됐다. 미니 전시 박스 448개로 구성된 '기억의 상자'는 고석홍·김미희씨 작품으로 각 상자는 광주시민들의 기억을 담은 전시 공간과 사물함으로 쓰이게 된다. 올해는 렘 콜라스, 예일 와이즈만 등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한 폴리가 광주역, 광주천, 푸른길 공원 등 모두 8곳에 설치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정 10년...살아남기 무한경쟁 내몰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항 활성화·배후산단 개발 급선무

정부 지역 불균형 없애고 예산 지원 늘려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하 광양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10년을 맞았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산업 단지 및 배후단지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는 등 말 뿐인 경제자유구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향후 10년간 82조원을 더 투입해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고, 외국인 투자도 늘린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전국에 난립한 경제자유구역이 이제는 '무한 경쟁시대'를 맞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이처럼 정부의 '선택과 집중'에 따라 구조조정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도 고조돼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광양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광양항의 물동량을 늘리고, 산업단지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

적하고 있다.

광양 경제자유구역은 광양만 일대 83.7km² 부지에 18조9000억원을 들여 광양·울촌·신덕·화양·하동 등 5개 지구 23개 단지로 조성됐다. 그동안 134개의 기업과 120억 달러를 유치하고, 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오는 2020년까지 250억 달러 유치 목표를 감안했을 때 지난 10년간 성과를 거둔 건 사실이며, 4년 연속 우수 자유구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이순신대교 개통되는 등 광역교통망이 구축된 점도 광양 경제자유구역의 미래를 밝게 하는 요소다.

하지만, 일부 산업단지는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허허벌판 수준이며,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예산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5개 지

구 중 기업체를 유치해 자유구역이라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지구는 울촌(분양률 89%)·광양지구 뿐이다.

산업단지 개발도 늦어 울촌2산단, 황금산단, 세풍산단이 올해에야 착공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23개 단지 중 단 2곳만 준공됐고, 11곳은 추진 중이며 남은 10곳은 공모를 계획 중이거나 개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과거 정부의 경자유역 예산 지원이 부족했던 것도 광양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다.

민주당 우윤근(광양·구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천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각각 3880억 원과 3064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광양만은 1189억 원 그쳤다. 또 경제자유구역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도 광양만은 1180억 원에 불과한 반면, 부산·진해는 3158억 원, 인천은 2323억 원 지원받았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예산의 지역 불균형이 텅 빈 광양만경자유역을 만든 셈이다.

또 정부의 부산항 중심 정책에 따라 광양항의 물동량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도 광양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0년까지 광양항의 물동량을 연 1200만TEU로 늘린다는 목표지만 지난해 실적은 214만TEU에 그쳤다. 광양항 활성화는 광양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다.

전남개발연구원 이진철 원장은 "광양항의 물동량을 늘려야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광양만경자유역도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국내 다른 자유구역에 비해 광양만은 그나마 활발한 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역 차별을 없애고 예산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南 "재발방지 우선" 北 "조속 재가동"

개성공단 회담 합의문 없이 종료...15일 3차회담

남북 양측은 10일 개성공단에서 가동 중단 상태인 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또다시 마주앉았으나 입장차는 여전히 컸다.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설비점검이 이뤄진 만큼 조속히 공단이 재가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남측은 공단의 재가동은 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이날 회담 기조발언에서 "개성공단의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조속히 끝내고 재가동이 들어가기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무엇보다 개성공단은 안전한 공단이 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회

담에서 북측의 개성공단 통행금지 및 폐쇄, 노동자 철수 등의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서 단장은 또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한편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도 투자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개성공단이 발전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발전을 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은 남측 때문이라는 입장으로 맞받았다.

박 부총국장이 회담에서 6·15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언급하면서 "개성공단 정상가동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북한은 개성공단의 가동중단이 키 리졸브 등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북측을 자극하는 언론보도, 김관

진 국방장관의 인질구출작전 언급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처럼 남북 양측이 현안마다 견해를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 번의 회담으로 합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앞으로 회담을 계속 하면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은 합의문 없이 종료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후 5시40분부터 4분간 열린 종결회의(전체회의)가 끝났다"며 "합의문은 없었다"고 밝혔다. 남북 양측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이어 오후 3차례에 걸친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조율을 시도했다. 그러나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오는 15일 개성공단에서 제3차 실무회담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여수박람회장 쪼개서 판다

정부 빛도 5년 걸쳐 상환...사후활용 실무회의 매각조건 완화

정부가 경기 침체 속에서 팔리지 않고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나눠서 매각하고, 박람회 개막전 빌려줬던 4846억원도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각 대상인 박람회장 부지만 25만㎡이 넘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나온 방안이다.

또 박람회장에 동아시아해조정기구(COBSEA)를 유치하기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전남도 등은 10일 서울에서 박람회 지원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후 활용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괄매각 후 정부 차입금을 일괄 납부해야 한다'는 매각조건을 완화해 '분할 매각해 돈을 나눠서 갚는 것'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이에 따르면 일괄매각을 원칙으

로 하되, 민간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6개 구역으로 분할 매각하거나 구역 내 토지를 세분화해 판다는 것이다. 실제, 마땅한 매입자를 찾지 못했던 지난 1차 매각 과정에서 국내 3~4개 기업이 분할 매각을 요구하기도 했다. 매각 예정가격이 5300억원(감정평가액 4826억원)에 달해 기업이 일괄 매각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지원금 일괄납부 방침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분할 매각에 따라 한꺼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5년에 걸쳐 나눠서 갚는다는 것이다.

박람회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국제기구 유치 활동도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중국, 캄보디아 등이 회원국인 COBSEA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 기구는 방콕에 있으며 한국과 말레이시아, 중국 등이 유치에 뛰어들어 있다. 회원국인 베트남과 필리핀 등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의 갈등으로 COBSEA의 한국 유치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망 전망도 밝다.

한편 지난 4월 20일 박람회장을 재개장해 지난 8일 현재, 63만 4000명이 다녀갔고 이를 통해 2억 9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HERA
WHITE PROGRAM
BIOGENIC EFFECTOR
WHITENING REVITALIZING RADIANCE

타고난 듯 눈부신 조명피부, 이제 당신 거예요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바이오제닉 이펙터

모든 여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타고난 것처럼 빛나는 피부~ 피부 속부터 밝히면 가질 수 있어요
피부와 동화되는 Cell-Bio™ 포뮬라가 조명인자를 폭발적으로 키워주는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바이오제닉 이펙터~ 타고난 듯 눈부신 조명피부, 이제 당신 거예요

•Cell-Bio™ 피부 동화 포뮬라
피부와 동화되어 보다 폭발적인 효과를 인식하는 헤라만의 알선 피부과학입니다

NEW
이펙터 동성
주름개선기능성
식용의약품안전성

HERA

*유통업체명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요금부담) www.hera.co.kr